

고흥군 지적측량에 드론 띄운다

도덕오마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디지털 항공영상 촬영 도입 고해상도 영상자료 경계 쉽게 확인해 토지 정보 편의 제공

고흥군이 지적 재조사 측량을 위해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디지털 항공 영상을 촬영해 주목을 끌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23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서 드론으로 '2018년도 도덕오마·2·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역'에 대한 디지털 항공영상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덕 오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디지털 항공 영상 촬영에는 송귀근 고흥군수, 한국국토정보공사 허희환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도덕 오마지역은 296만㎡(1917필지) 규모로 100여

년 전 도서(섬)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역이 많은 곳이다.

이번 항공 영상 촬영을 통해 토지를 세로이 조사 측량해 바로잡고 중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특히 드론 촬영 해상도는 5cm 이하의 고정밀 영상으로 필지별 경계가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하며, 시각적 공간적 이해도를 높이는 영상도 제공한다.

고흥군은 드론으로 촬영된 최신 영상을 지적 재조사 측량과 함께 주민설명회·경계 협의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경계를 파악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귀근(가운데) 고흥군수가 지난 23일 도덕 오마·2·3지구 지적재조사 현장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로부터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항공 영상 촬영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관계자는 "최신 측량기술인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계

조정 협의시 편의를 제공,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곡성군, 기초수급자 사전신청 접수

곡성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수급자 사전 신청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에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보호종료아동 수급자가 해당된다.

2019년 1월부터 소득 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혜택은 차등 적용이 있다.

다음달 3일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되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원하지 못했던 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복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곡성군, 감염병관리사업 우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곡성군이 최근 열린 '2018년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에서 감염병 관리사업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사진>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등 세부 지표별로 실시됐다.

곡성군 보건의료원은 만 65세 폐렴구균 예방접종, 영유아완전접종, 의료기관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의 신속성, 역학조사를 완성하는 감시체계 운영총실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예방접종 확대와 감염병 관리 감시체계 강화 등을 통해 곡성



군민을 감염병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보성차밭 비추는 '빛의 축제' 준비 한창

다음달 14일 점등식 앞두고 1만송이 LED 차꽃 구축 눈사람·디지털 나무 등 화려한 '빛의 왕국' 선보일듯

보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겨울의 낭만을 선사할 '제16회 보성차밭 빛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축제는 다음달 14일 오후 5시30분 점등식을 시작으로 31일간 화려한 희망의 불빛이 겨울밤을 수놓게 된다.

올해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모티브를 얻어 흰눈이 내린 차밭에 매일 밤 화려하고 따뜻한 불을 밝힌 '빛의 왕국'을 선보인다.

군은 추위를 뚫고 피어난 1만 송이의 LED 차꽃이 축제장을 아름답게 밝힐 수

있도록 시설물을 구축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눈사람, 디지털 나무 등을 차밭과 공원 일대에 배치해 형형색색의 빛으로 채울 예정이다.

주말에는 버스킹 공연과 다채로운 체

험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준비해 관광객을 맞는다.

보성 빛 축제는 1999년 12월 밀레니엄 트리를 시작으로 한국기네스북에 등재되며, 한국 빛 축제의 효시로 20여년 동안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지역대표 명소인 보성차밭과 빛 축제를 브랜드화해 매년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단위 여행객과 연인 등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겨울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차밭 빛 축제 기간 가족과 함께 보성을 방문하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 양봉가공유통시설 11억원 들여 준공

보성읍 봉산리에 연면적 2000㎡... "도내 거점센터 역할 기대"

지역 양봉인의 숙원사업인 양봉가공유통시설이 보성읍 봉산리에 준공했다.

보성군에 따르면 양봉가공유통시설이 최근 보성다향영농조합법인(대표 박요종) 주관으로 기관단체장과 지역 양봉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양봉가공유통시설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8월 착공해 9월 말로 공사가 완료됐다. 총 공사비는 11억원으로 국비, 군비 보조 8억원 자부담 3억원이 투입됐다.

유통시설은 연면적 2000㎡, 건축면적 426㎡ 규모다.

1층은 주로 벌꿀을 농축할 수 있는 해썬(HACCP)적용 농축시설 및 포장시설이 들어가 있으며, 1일 15t의 벌꿀 농축처리가 가능하다.

2층은 사무실, 전시실, 회의실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벌꿀 생산은 물론 양봉농가의 정보의 장으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양봉농가들의 숙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그동안 벌꿀을 농축하기 위해 순천, 광주까지 가는 불편 감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인근 화순, 고흥, 장흥, 강진 농가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보성군 양봉가공유통시설이 도내 양봉산업의 거점센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성 지역에서는 총 266농가가 양봉업에 종사중이다. 2만340군을 사육하고 있어 전남도에서 사육군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구례 사성암, 저소득 가정 성금 1000만원·쌀 200포대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구례 사성암이 겨울을 앞두고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저소득 가정을 위한 성금을 기부했다.

구례군에 따르면 사성암은 지난 23일 군청을 찾아 1000만원과 백미 200포대를 기탁했다.<사진>

사성암 주지 대진 스님 등은 사성암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자판기 수익금 등을 모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로 했다.

전달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통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우리 군의 뛰어난 경승지 사성암에서 자비의 쌀을 기탁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취업 등 희망 여성 대상 '찾아가는 창업특강'

고흥군은 지난 21일 고흥 여성회관에서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찾아가는 창업특강'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특강은 (재)전남여성플라자 전남광역시로일하기센터의 지원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구직·창업기회 확대·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강은 '찾아가는 창업특강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창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22명이 참여해 SNS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셀프 리더십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강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취업과 창업에 관심이 많았으나 자신이 없어 망설였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 취업의 두려움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여성 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취업상담사 2명을 배치하고, 4400만원의 취·창업 사업비를 지원해 경력 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취·창업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